

# 코로나 여파에도 광주 광공업생산·수출 선전

호남통계청 2020년 4분기 경제 동향

### 광공업 생산지수 전년비 9.1% 증가 ... 세종·광주·충북·경기만 증가 가전 국내의 수요 증가로 4분기 수출 증가율 17%...전남은 -10.6%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 광공업 생산이 회복되면서 한 해 생산액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 '2020년 4분기 지역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주 광공업 생산지수(금액)는 1년 전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증감율은 0.6%로, 광주는 세종(10.8%)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분기 생산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은 세종과 광주, 충북(2.7%), 경기(1.3%) 등 4곳이다.

같은 기간 서울 생산액 감소율은 10.8%로 '두 자릿수'를 보였고, 부산(-9.4%), 대구(-6.4%), 경남(-5.4%), 전북(-5.1%), 강원(-5.0%), 경북(-4.5%), 대전(-4.2%), 울산(-3.4%), 제주(-3.2%), 전남(-2.5%), 인천(-1.3%), 충남(-0.2%) 순으로 감소가 심했다.

한 해 동안 생산액이 1년 전보다 늘어난 지역은

경기(9.0%)와 세종(7.6%), 광주(0.7%) 3곳 뿐이다.

광주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1분기(-1.6%)와 2분기(-14.8%) 생산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생산액이 11.7% 증가하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4분기에는 전기장비(26.2%)와 전자부품 제조업(29.7%)이 나란히 증가하며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냉장고 등 신규 전자제품을 내놓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아이폰 부품을 납품하는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 등의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동안 광주 냉장고 수출액은 3억

3041만7000달러(3667억원)으로 1년 전(2억2028만1000달러) 보다 50.0% 급증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콕' 영향으로 이른바 '백색 가전' 수요가 늘면서 내수와 수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남은 지난 연말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등의 영향으로 생산액이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4분기 석유정제 생산액은 9.1% 감소하고 화학제품도 10.4% 줄었다.

광주 4분기 수출 증가율(17.0%)은 대전(28.6%), 충북(28.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 수출은 1년 전보다 10.6% 감소하며 부산(-16.4%), 울산(-13.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부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79.75 (-27.87)
↓ 코스닥	954.29 (-10.82)
↑ 금리(국고채 3년)	1.020 (+0.024)
↑ 환율(USD)	1110.40 (+4.50)



## 군대 가는 '전남 바나나'

### 전남농협, 경기도 부대 월 2t 공급

전남에서 재배된 바나나가 매달 2t씩 군 장병들 식탁에 오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이달부터 전남에서 재배되는 국내산 바나나를 경기도 군(軍) 장병들에게 급식으로 월 2t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해남 4개 농가를 포함해, 강진·완도·진도 등 7개 농가에서 1.7ha 규모 생산되고 있다.

이들 바나나는 전남지역 아열대과일 대표 브랜드인 '오매향'의 이름을 달고 출시되고 있다.

전남 바나나 재배 농업인들은 '아카데미 클럽'을 통해 생산기술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수요처 공급에 고심해왔다.

전남본부는 군 급식 공급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납품 등 수요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 12억 금융사기 피해 예방

### 전남농협, 교육·홍보 활동 성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벌여 총 12억원(90건)에 달하는 피해 예방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최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협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남본부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 민원을 최우선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힘써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여행 위축에 골프 인기

### 광주신세계, 상품 매출 15% ↑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위축된 가운데 골프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 점포의 지난 한 해 골프 상품 매출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화장품·의류 등 대부분 상품군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과 대조된다. 광주신세계 측은 "해외 여행길이 막힌 고객들의 수요가 야외 골프로 몰린 것 같다"며 "골프 취미생활에 새롭게 발을 들인 이(골프+어린이) 문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점포의 지난 4분기(10-12월) 골프용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나 뛰었고, 골프의류 역시 32%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런 수요를 겨냥해 분관 6층을 신상품으로 새단장하고 22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신춘 맞이 골프대전'을 진행한다.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5% 상당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준다. /백희준 기자 bhj@



22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이 6층 매장에서 골프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구직자 절반 취업 목표 바꿨다

### 코로나 여파 업종·연봉 등...61.5% 빠른 취업 위해 中企 선호

코로나19 여파로 구직자 절반 가까이가 취업 목표 업종을 바꿨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2062명을 대상으로 '2021년 취업목표 변화'에 대해 물어보니, 응답자의 46%가 "취업목표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48.3%·복수응답)이었다.

연봉 수준(34.6%)과 직무 변경(29.1%), 기업 규모(25.2%), 기업 유형(16.7%)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 목표가 바뀐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답변이 73.5%에 달했다.

취업 목표를 바꾼 이유는 "취업을 빨리하기 위해서"(45.4%·복수응답)가 많았고, "코로나19로 어디든 취업이 되는게 다행이라서"(35%),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33.3%), "현재 스펙으로는 기존 목표 기업에는 취업 못할 것 같아서"(23.8%), "빨리 경력을 쌓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20.2%) 등의 순이었다.

취업 목표로 삼은 곳은 중소기업(61.5%·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기업·중견기업

(36.5%), 공공기관(34.7%), 외국계기업(11%), 공무원(10.1%) 순이었다.

구직자 가운데 취업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응답률은 40.9%에 달했다.

현재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1순위는 '직무분야 자격증'(57.4%·복수응답)이었다. 경력 위한 비정규직 근무(26%), 아르바이트(25%) 등도 있었다.

취업 목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직무 적합성'(49.7%)을 꼽았고, '업종 미래 발전성'(22.1%)이 2위였다. 다음으로 '연봉'(16.1%), '기업재무 상태'(5.7%) 등이 있었다.

사람인 측은 "업종 미래 발전성이 2위에 꼽힌 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빛 내서 주식' 22조 돌파

개인투자자들이 빛을 내 주식을 사는 '빛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2조원도 돌파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증권사의 신용공여 잔고는 전남보다 3206억원 증가한 22조2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공여잔고 잔고는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으로, 22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해 말 19조원대에서 1월 초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같은 달 25일에는 21조633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2일에는 20조원 아래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며 11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